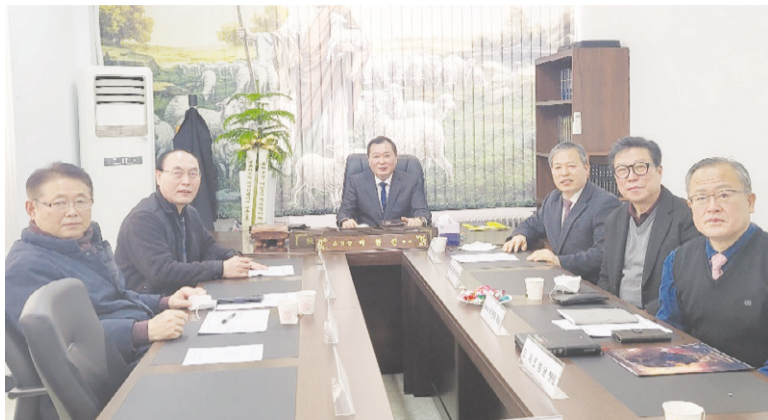


## 제106회기 제6차 임원회 소식

제 회 전국 목사장으로 기도회; 홍대국제연수원에서 갖기로



제106회기 제6차 임원회(총회장 박형진 목사)가 지난 14일(오전 11시) 교단본부 소회의실에서 회집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인도하였다.

장로부총회장 박형욱 장로(꽃밭교회)가 기도하고, 회의록 서기 박동혁 목사(더스토리교회)가 로마서 8장 28절을 봉독하였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총회장 박형진목사(새은혜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부총회장 윤서구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의장 박형진 목사는 회계 조성운장로(길교회)로 기도케 한 후에 서기 김정호목사가 회원을 호명하고 보고를 받아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계 조성운장로의 회계보고와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의 사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사무총장은 교단본부 이전공사의 내역과 협조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메

시지를 전하고,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원 및 증경총회장단 연찬회의 연기와 26일 총회개혁산학연구원 개강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날 주요결의사항은 3월 3일(목)에 임원 및 증경총회장단 연찬회를 1일 워크숍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22년도 목사 장로 기도회는 5월 23-24일(1박2일)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세종시 조치원을 신안리 소재)에서 갖기로 결정하였다.

### 축복의 전달자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목사님, 장로님,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문안 올립니다. 임원이 지났으니 멀리서 복소식이 들릴 만한데 아직 봄은 오기 싫은 모양입니다. 타벌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들은 자가 아득한데 변형 오미크론이 득세하여 십만 확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바라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목사님들이 바쁘고 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축복의 전달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자상명령은 한마디로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당부요, 어떻습니까.

하는 권세를 주셨 습니다.(막6:7) 그 권세는 축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파송하신 저희 목사들에게도 꼭 같이 나누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목양사역은 선지자 편보다는 제사장 편에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제사장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요, 힐링의 선포자요, 화중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 받은 열 문둥이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하심은 그의 인증을 받고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살리고 치유하는 사명자이니 축복의 전달자가 분명합니다.

셋째, 두려움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주는 사역자이니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방접종을 했는데 확진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찌어찌 된다는 배푸는 자인즉 가장 큰 복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명령을 주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마(28:18)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부터 어명을 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 받은 자’ 인즉 정령 특권자요, 행복자입니다.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목사는 복음의 선포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천국 가이드이니 축복의 전달자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을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장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천하기로 하고, 총회서기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함으로 폐회하였다.

※참석자 : 김정웅목사, 이다윗목사, 박종윤목사, 김요환목사, 김우익목사, 최영일목사, 김정호목사(총회서기), 박만진목사(사무총장)

## 제106회기 총회부흥사연합회 1차 전체회의

조직정비하고, 노회와 전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하기로 다짐하다

제106회기 총회부흥사연합회(대표회장 류현옥목사)는 지난 2월 17일(오전 11시) 익산 동명교회(류현옥목사) 예배당에서 1차 부흥사연합회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부흥사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다짐하였다고 관계자가 전해왔다.

이날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김요환 목사(송악능능교회)가 인도하였다. 총회서기 김정호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하박국 3:1-2을 봉독했다.

설교자로 나선 대표회장 류현옥 목사(익산동명교회)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예배는 직전 총회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사항으로 연합회의 조직을 정비하여 강화했다. 정비된 조직은 고문: 증경총회장단, 증경회장: 김정웅목사·박형진목사·강대민목사, 부흥사연수원장: 김정웅목사, 훈련원장: 강대민목사, 대표회장:

류현옥목사, 수석부회장: 정완득목사, 부회장단: 김정호목사·임용태목사·신연식목사, 서기: 유남규목사, 부서기: 김병설목사, 회계: 이다윗목사, 부회계: 하예성목사, 사무총장: 김요환목사를 각각 선임하고, 부흥사연합회 회원 연회비를 결정하였다. 대표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단: 40만원, 일반회원: 30만원으로 결의하였다. 기타 안건은 임원에게 위임하고 김정웅목사의 기도회 회무를 마쳤다.



※참석자 : 류현옥목사, 김정웅목사, 이경근목사, 김정호목사, 임용태목사, 신연식목사, 이다윗목사, 유남규목사, 김요환목사  
※배석자 : 박만진목사(사무총장)

## 제106회기 2차 교육부 전체회의

총회교역자 여름 수양회; 3박 4일, 강원도, 중부내륙에서



제106회기 총회 교육부(부장 김정웅 목사)는 전제 회의를 열고 오는 6월20일부터 23일까지(3박4일) 개최하기로

며, 지난 2월 17일, 익산 동명교회(류현옥목사)예배당에서 회집한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김요환목사(송악능능교회)가 인도하였다. 화평교회 담임 박종윤 목사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빌3:23-24을 봉독한 후에 교육부장 김정웅 목사(중을산교회)는 “주께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결의된 주요안건은 수양회 실무위원회를 교육부장(김정웅목사)을

포함하여 대화장(미정), 준비위원장(미정), 서기(김요환목사), 회계 이다윗목사 등 6인으로 조직하기로 하고, 수양회 일정은 6월 20일~23일(3박4일)로 정하고, 장소는 강원도 혹은 중부 내륙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3월 24일(목)에 현황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수양회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참고하여 대화장, 교육부장 각 300만원, 교육부 부원 각 30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기관의 찬

조를 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대화장, 준비 위원장, 강사의 추대 및 선정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되 교육부장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천하기로 하고, 총회서기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함으로 폐회하였다.

※참석자 : 김정웅목사, 이다윗목사, 박종윤목사, 김요환목사, 김우익목사, 최영일목사, 김정호목사(총회서기), 박만진목사(사무총장)

# 2022년 106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8장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 2. 고시일정

-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제 출 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연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원서접수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고시료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3. 고시과목

- 제출과목  
① 논문제목  
• 한국교회 성상(민족 복음화)과 목회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경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 성경주해  
• 구약 : 호세아 1:2~9"이슬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6매

- 설교문  
• 로마서 1:16~17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5~6매

- 제출마감 / 2022년 4월 29일 당일소인유효
- 제 출 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문 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 4. 위원선정

- 소위원 : 3명=부장, 서기, 회계
- 심사위원 배정  
(1) 논문: 강대민, 박동혁, 이철영  
(2) 주해: 임종학, 채영구, 이부교  
(3) 설교: 윤서구, 유남규, 신현식
-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조직신학 : 임종학, 정치 : 강대민, 교회사 : 윤서구

#### 5. 일정 및 장소

- 예배소집 및 세미나: 5월 19일(목) 11시 전북개혁신학원
- 고시일 및 장소: 6월 13일(월) 11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010-9654-5180  
서 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고시부

총 회 장 박형진 목사  
고시부장 류현옥 목사  
서 기 유남규 목사

## 社 說

## 대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제20대 대통령을 뽑아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00후보는 자기 이력서에 불교 신자라고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았으니 속지 마세요.' 카톡 문자로 전달받은 어느 목사 사가 쓴 글의 일부이다. 이쯤 되면 그 목사의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지하다. 대통령 선거를 종교 편 가르키라는 말이 아닌가?

불교신자는 절대 안 된다. 꼭 기독교 신자이어야만 한다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게 정답이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모든 교인들이 투표권자요, 투표는 곧 정치참여이다. 그렇다면 목사는 바르게 대선을 대비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를 게을리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기로에 서 있다. 목회자의 한 마디가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우선 정치는 하나님의 특별한총의 장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그런 장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나라를 통치하시는 섭리의 한 수단으로서 정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 교단이 특별수혈을 요청한다.

우리 교단은 모처럼 안정 속에 발전과 성장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정적인 언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된다. 해보자는 목소리가 듣기에 좋다. 교단 본부를 이전하는 일은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러나 소리 없이 도움의 손길을 펴는 동역자들이 동원되었고, 힘을 모았다.

어느 누구, 어느 교회도 낙담하여 거금(?)을 패했겠는가? 어렵기는 때 일반이지만 그래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고마운 생각으로 역사에 동참한 것일 게다. 그래서 고마운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1월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연보가 느는 것이 아닌데 상향조정된 새 예산을 집행하는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생떼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다. 초강대국 바로와 담판하는데 모세를 보내시되 열 차례나 독대하게 하셨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출애굽을 단행하셨다. 분명한 정치참여요, 신정왕권의 확립이 아닌가? 약한 자라도 그 쓰시기에 적절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후보자의 종교가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지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가까운 과거에 한국교회는 장로후보자에 열광하여 표표를 주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 과연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었는가? 설교랍시고 선거 유세를 하시는 안 된다. 교회는 선거유세장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을 정치판이수라로 만든다면 목사로서 도리가 아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해야 하는가? 그 정확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할 것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불변의 원칙이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던가?

달이기에 그러한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교단 살림역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 교단은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에 따른 지출예산이 증액되었음을 감안할 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세례교인 헌금을 앞당기는 담방 악을 처방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왕에 작성된 일이요, 예년처럼 보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필요한 때에 협력하여 실무자들의 격정을 덜어줌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왕에 이름을 세례교인 헌금이라 정했으니 정수, 그 이상을 보내도록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눈먼 돈으로 생각하여 제 주머니 채우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꼭 필요한 곳에 쪼개고 나누어서 요긴하게 쓰고 있음을 믿고 긴급한 요청에 믿음과 신뢰로서 응답하기를 긴급동의 한다.

## 제106회기 고시부 화상회의

2022년도 준목고시 1차 준비모임



시과목은 제출과목과 필답고사, 면접으로 구분하고 논문 제목은 “한국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역할연구”, 성경주해: 호세아 1:2~9, 설교원고; 로마서 1:16~17을 본문으로 각각 결정하였으며, 예비소집일 정 및 세미나 2022년 5월19일(목)

오전11시, 전북개혁신학원으로 고시일정 및 장소는 2022년 6월13일(월) 오전11시, 교단본부로 각각 정하였다.

이날 결의된 고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총회개혁공보 광고로 2차에 걸쳐 공지하기로 하였다.

## 총회개혁공사 이사회의

이사장 박성욱목사, 부사장 박경남목사 선임

이사장  
박성욱 목사부사장  
박경남 목사

지난 1월 29일(토) 오후 5시 총회개혁공보이사회가 화상으로 있었다.

발행인 총회장 박형진 목사(새은혜교회)는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로 기도케한 후 이사장 이충년 목사(영복교회)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장직을 사임하여 후임으로 경성노회

박성욱 목사(벨엘교회)로 선임하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박성욱 목사가 수락하였으며 황호관 목사(꿈꾸는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또한 신문사 직원 중 부사장으로 경기노회 박경남 목사(중심교회)를 선임하였다.

## 한교연 ‘사랑의 연탄 나눔’

소외계층에 2만6천 장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17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연탄은행창고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약 2만6천 장의 연탄이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지역 독거노인 2207가구가 한 달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송태섭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나눔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했다.

1부 예배, 2부 전달식 및 3부 연

탄 나눔으로 진행됐다. 한교연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야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개인 마스크와 소독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연탄 배달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예배는 공동회장 장시환 목사의 기도와 총무현 회장 김교현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고,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 후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교연은 2013년 12월부터 도

시 저소득층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지원을 목적으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약 10년 간 한교연이 연탄은행과 협력해 소외된 독거노인 가구에 지원한 연탄만 약 26만장으로, 이는 총 2,166 가구가 한달 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곳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로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집주인은 아파트 등으로 이사했고 저소득층 세입자, 독거노인들이 남아 연탄을 난방, 취사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교연은 매년 2월 중순에 연탄 나눔을 하고 있다. 한교연은 “연말 연시에는 사회 각 단체의 연탄 나눔 행사가 이어지다 2월 중순 이후에는 푹 끓이는 현실에서 서울연탄은행 측과 가장 효율적인 시기를 조절해 왔다”라고 했다.

## 포 토 뉴스



지난 12월 10일 전북 전주시에 개척한 나눔의교회 박찬섭목사에게 총회장과 총경총회님이 후원금을 주며 격려하였다.



1월 14일 교단본부 이전공사 격려 차원에서 전국장로연합회에서 교단본부 찾아와 사무총장 수고를 격려하고 김일출 장로께서 에어컨(냉,온)이전비를 헌금하였다.

## 한교연 ‘분담금 일률화’ 파격 시도, 연합사업 새 길 열까

최근 임시총회에서 운영세칙 개정… 교계 “평가할 만한 개혁”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10일 오전 서울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운영세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회원교단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정한 운영세칙 개정이었다. 이를 통해 한교연은 기존 교회당 1만 원을 납부하던 것에서 교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동등하게 250만 원을 내고 총대와 실행위원회 똑같이 파송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교단 크기에 비례해 기관 분담금을 내왔던 것이 그간 교계 연합사업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교

연의 이번 회원교단 분담금 일률화는 개혁적 시도로서 평가할 만 하다”고 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의원 수도 그만큼 많이 배정해 왔다. 그렇다보니 대형교단 위주로 연합기관이 돌아가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연합기관에서 오히려 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원교단 분담금 일률화는 그렇게 퇴색된 연합의 정신을 살려보고자 한 시도”라며 “작은 교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총회에서 전혀 반대가 없었다. 한교연의 이번 시도가 교계 연합사업에 새 길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총회 개혁공사 이사장  
이사장 박성욱 목사  
(벨엘교회)

경성노회 회원 일동은 박성욱 목사가  
총회개혁공보사 이사장으로 선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회 개혁공사 부사장  
부사장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경기노회노회장 박만진목사 외 회원 일동은  
박경남 목사가 총회개혁공보사 부사장으로 선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總 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박형진 사장 황호관 이사장 박성욱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제작번호 :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총회홈페이지 : www.rpck21.org E-mail :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경강해



장 영 목사  
(신약학 교수)

오늘은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여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천상배경 장면입니다.

먼저 3장과 4장이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보좌”란 단어가 3장과 4장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또한 요한인 성령의 인도로 하늘 문으로 올라감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심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언급됩니다.

우선 보좌 주변배치를 보면, 보좌앞에 일곱 등불 견 것(즉 일곱 영)이 있고

(4:5),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즉 근위 생물)이 있고(4:6), 다시 그 주위에 (구약 12 지파와 신약 12 사도로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24 장로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4:8-11).

이는 향후 전개될 역사의 종말과 구원과 심판의 전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보좌를 꾸미고 있는 상징적 묘사들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4:2,3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는 표현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고”란 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이란 (출 28:17-20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다는 보석 중 마지막 것이고, 홍보석은 그 첫 번째 것으로서 홍패의 12 보석들을 대표하는 보석

들입니다.

그리고 그 12 보석들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란 표현에서 ‘같고’ (호모이우스)란 표현은 신적이며 초감각적인 대상을 이 땅의 사물에 견주어 묘사한 것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각과 표현의 한계를 보여주고 단어입니다.

또 한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창 9:12,13의 무지개를 연상시키고 있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세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의 전반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났다”는 것은 출 19:16에서처럼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5의 후반절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되어있는 데, 이 부분은 요한 사도가 직접 그 상징이 어떤 의미인

가를 즉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1:20에서 “...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해석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4:6절에서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은 유리바다’ 라는 상징적 표현은 출 14:1-15:2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출애굽 사건은 모험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영적 구원사건의 모형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출애굽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사건들의 밑그림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 4:7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란 표현은 구약 겔 1:10(그네 생물=스랍의 얼굴들의 모양은 빛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빛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빛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빛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는...)의

상징을 파괴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창의적으로 만든 상징입니다.

즉 에스겔에 나오는 한 생물의 얼굴에 있는 네 면의 짐승 모습을 나누어,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거의 모든 경우에 구약의 상징들을 끌어 쓸 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11에서는 귀로 듣는 부분으로, 네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꾸미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합창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이야기에서 이 땅에서 사단이 짐승과 그의 대행자인 로마 황제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세상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정



박형진 목사(총회장, 새은혜교회)  
2월 14일(월) 임원회 설교  
2월 20일(주) 성남 창대교회 설교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2월 9일(수) 전북개혁신학원 학차장 회의  
2월 26일(토) 총회신학 개강  
2월 27일(주) 새은혜교회 설교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월 22일(토) 총회 고시부 화상회의를 인도  
2월 9일(수) 전북개혁신학원 신대원장으로 인선  
2월 11일(금) 전북동노회 고시부 교리신조를 담당  
2월 17일(목) 개혁 교단 총회 부흥사회에서 설교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2월 21일 (월) 총회개혁공보집 필  
2월 26일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개강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월 22일(토) 총회 고시부 화상회의  
2월 14일(월) 총회 임원회  
2월 26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개강



박성욱 목사(본보이사장, 뽀엘교회)  
총회개혁공보사 이사장 선임



이경근 목사(직전총회장, 평안교회)  
2월 9일(수) 전북개혁신학 학차장 회의 주관  
2월 17일(목) 총회부흥사회 참석 축도



유남규 목사(회의록부서기, 어울림교회)  
2월 9일(수) 전북개혁신학 학차장 회의  
2월 14일(월) 총회 임원회 참석  
2월 17일(목) 총회 부흥사회 참석



박경남 목사(경기노회, 중심교회)  
2월 14일 총회개혁공보사 부사장 선임  
2월 14일 교단본부 비치용 성경,찬송 기증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2월 10일(목) 한교연 회의 참석  
2월 14일(월) 총회 임원회 참석  
2월 17일(목) 총회부흥사, 교육부회의 참석  
2월 22(화) 부활절 행사준비 기도회 참석

조직신학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선별된 흙을 재료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창세기 1:26~27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로마가톨릭 및 근대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하나님과 외형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주의 신학 및 귀납적 논법을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하여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성은 인간이

지닌 도덕적 기능이라고 강종는 반면 동방 교회는 인간이 지닌 이성적 기능 측면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구 장로교회 신학자 찰스 하지(Charles Hodges)를 비롯한 개혁신교회는 인간들이 지닌 영혼의 본질인 이성, 양심, 지성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신학자 헨리 띠이스(Henry Thiessen)은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존재의 필연상 삼위로 존재하면서 절대적인 사회관계를 자체 내 소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상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성의를 갖춘 사회적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주장한다.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임을 알려 주고 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

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에서 아담의 지성성을,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에서 아담이 화와를 보며 고백하였던 내용은 바로 아담의 감성성을,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서서 나와 함께 있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에서 아담의 의지성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의지를 지닌 인간은 자의식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 노선이나 알미니안 주의 노선에서는 완전타락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강조하는 반면 칼빈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인간의 완전타락성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 이래 인간이 창조되었던 상태에 대한 논쟁 가운데 인간은 무죄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상태(righteousness and Holiness)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의’는 인간의 완전타락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원래의 의’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의 완전타락설과 펠라기우스의 무죄성을 조화시킨 이론으로 제시한 역사적 필연에 의해 로마 가톨릭이 교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하여 제정한 교리일 뿐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종교개혁에 이르러 루터나 칼빈이 어거스틴의 신학노선을 따르면서 “원래의 의(Original Righteousness)”를 강조한 반면 알미니우스와 후기 루터란 주의 신학자들은 “무죄 상태(Innocent)”를 주장하기에 이르러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상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한 논쟁은 그리 큰 관심의 대상에서 서서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대전 노회	
총회신학교	1,000,000	박경남
박 형 진	400,000	황호관
박 성 욱	300,000	류현욱
경기 노회	200,000	김일출
전북 노회	200,000	박광식
전북동노회	200,000	조강희
전북중부노회		신연식
서울남노회		박연성
서울동노회	100,000	김선영
경서 노회		육한수
경중 노회		
남부 노회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 會

改革公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년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 會

改革公報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 지상설교

“연약함을 아신 성령님”  
(로마서 8장 26-27절)박성욱 목사  
(벤엘교회)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도우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 1.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파곤하기 쉽고 병들고 부러지는 것인 인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심령과 육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 인간 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기도조차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환경에 대해 대처하는 힘이 약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권세자나 부자나 선생이나 선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 2.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

닫게 하시고(요16:8),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고전12:3), 중생케 하시고(요3:3),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엡1:3).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요14:26), 인도하시고(행10:19), 성결케 하십니다(롬15:16).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말의 어원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돕는 자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게 격려하는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 3.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훈련을 위해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며, 고난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인내가 곧 승리요 구원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모든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아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 신촌대담

## 총회장과 본사사장이 만나 나눈 진솔한 얘기

지난 14일, 임원회를 마친 뒤에, 새봄을 맞이하여 교단본부 총회장실에서 본사 사장이자 주필이 총회장 박형진 목사를 만나서 나눈 진솔한 얘기를 공개한다. 교단의 장애와 건강하고 은혜로운 제106회 총회의 현안들에 대한 총회장의 속내며, 40년 가까운 목회의 회한까지 격의 없는 대화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며 교단 산하 노회와 개체교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어느새 불소식이 가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회들과 개체교회들께 봄맞이 인사를 전해 주시지요. 참으로 어떤 소망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순리에 거역하지 않는 자연의 순환은 어김없이 봄을 불러 오십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과 험악한 세월을 어찌 지내시는지요? 무탈하시기만을 기도하며 봄맞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단과 총회, 그리고 모든 임원들은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 초심을 잃지 않고 고군분투,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과 같이 코로나도 지나갈게 확실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부디 힘을 내시고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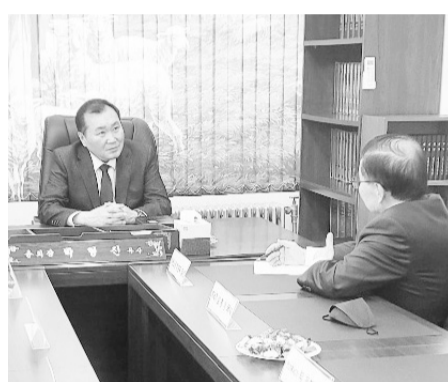
★코로나-19, 변형 오미크론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선 예배가 바뀌고, 목양의 트렌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이쯤에서 손익계산은 별 의미가 없다 싶으나 그래도 중간결산 품은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재난 지원금,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지요, 하도 어려워 하니까 교회는 감히 어렵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공식 통계임을 전제하고서라도 10,000 교회와 사라고, 3,500여 교회는 개점휴업상태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계의 피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적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내적피해가 심각한 속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아주 좋은 생각과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교회들 부근에 만연했지요, 서로 관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서로 관하여 모이지 않도록 힘쓰라는 말씀으로 변질되었고, 떡을 떼는 친교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육식을 가릴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받는다는 목회자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호기로 선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작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를 쓰고 모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지요. 처제에 목회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기회로 선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방식은 물론이고, 교회의 크고 작은 회의들을 영성회의로 대체하여서 꼭 예배당에 모여야만 회가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시다. 당회, 제직회를 영성화한다면 참으로 생산적인 회의문화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시다. 한국교회 목회에 있어서 심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컸습니다. 그 심방은 주로 결석자, 혹은 유교자 중심으로 행하여져서 출석을 독려하는 것이 심방의 주목적이었지요. 이제 찾아가는 심방의 목

적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만 아드리고 싶습니다. 결석자 위주의 심방에서 일상적으로 힐링을 목표로 하는 심방다운 심방을 하도록 코로나가 바뀌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80%나 되었거든요. ★은혜로운 주제로 시작된 제106회 총회였습니다. 취임하면 코로나-19도 종식되었거니 생각했는데 종식은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판국에 무엇을 해보자는 것 자체가 호사스런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일조차 망설이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교단본부이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단의 저력과 잠재력을 파악한 것이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심시일반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연중행사이지만 위축되어서 힘쓰지 못하고 지난 일들을 급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5월로 계획된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하고, 고시부에서 주관하는 준목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기하여 갖지 못하고 지나친 교육부 주관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를 꼭 개최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허락한 연합회조직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 여전도회 연합회, 중부협의회, 주일학교 및 청년연합회가 성공적으로 조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계에서 혹은 노회나 개체교회에서 최소한 이 것만은 고쳐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교회의 고질적인 약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무관심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사랑의 반대어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관심보다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성도들이 교회야 무사가 아니라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접는 순간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개체교회와 목회자들이 노회에 대한 무관심, 노회들이 총회에 대하여 관심의 끈을 놓는 그 순간 노회와 총회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교단본부 이전하는 과정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인들이 기본만 해줘도 교회는 되거든요. 출석, 연보, 봉사의 기본만 해줘도 교회는 되어가거든요, 마

침가지로 노회들이 기본 그 이상을 해주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기본만 충실히 해줘도 교단살림은 꾸러가고, 총회는 된다 싶습니다.

★40여년 가까운 목양현장인 교회를 돌아보면 회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 그리고 아일은 지금 생각해도 안 했더라면 참 좋을 뻔 했다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아버지께 죄송하고 우리 새은혜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미안한 일이 한 두 가지 겠습니까? 안산에서 시작해서 안산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꼭 이곳에서 있을 것인데, 그것 참 잘했다고 싶습니다. 한 우물 파기를 했으니까요. 목사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한 일은 제가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강력적으로 행하신 일로 믿으면서도 그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내기를 걸만큼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하심을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일뿐이지요, 백번을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수양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웠을 때, 뜻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오늘의 새은혜교회로 새 출발한 것은 참으로 신의 한 수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던 아픈 일, 한 가지는 성주산

수양관에 퍼부는 정열의 심문의 일단 목양일념으로 교회에 쏟아 부었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너무 큼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수양관 중심으로 기도운동에만 전념했어도 아쉬움은 남는데 새로운 장례문화바람을 타고 추모관 사업에 손을 댔던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었다고 자인합니다. 목회사역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부흥운동에 전념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있답니다. ★참으로 아픈 기억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니 괜히 미안해집니다. 총회장님께서 이름을 딛고 새로 시작해서 지금 설교와 기사는 새은혜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참신한 교회라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기에 그런 소문이 난 것입니까? 오늘의 새은혜교회가 있기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변함없이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들께 우선 감사해야겠습니다. 저는 요즈음 인생2막이자 목회의 새장을 경험하며 행복합니다. 목양 40년에 가장 편안하고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온전한 하나님을 이룬 교회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회로부터 유초등부까지 일사불란 자체입니다. 아나모가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각기 재물을 감당하는 모습은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누구나, 기관이나 버릴게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중창석 세례교인까지 거의 100% 출석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

이 아니라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배웠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졌는지 새로운 교인들이 겹(?)을 낼 정도여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정도거든요. 이정도면 해두지요.

★총회장으로서 노회에 특별히 요청할 협조사항은 없으신지요, 총회와 노회는 처리회로서 상하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야 사회와 회회의 관계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하는 아주 특이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갑을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조가 총회와 노회 간에도 유지되고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체 교회가 그러하듯이 노회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직이며, 문서며, 문부들을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총회개회 전에 정치부에서 각 노회의 회의록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107회 총회준비는 이것부터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각 노회는 개체교회의 당회록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각 노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합회를 조직해야 전국연합회 조직이 가능해지는 것이 수순이니 이걸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소망이 있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총회장님은 이상적인 총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우리 교단의 내일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평소 애 두고 싶은 교단,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총회는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단, 우리 총회는 건강하며,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교단본부를 이전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각인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원하는 맘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목사님들이며, 장로님들이 모두 선하잖아요? 약점이 없다는 게 어딘데요, 속물정치권이 없지요,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너무 작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커서 좋은 게 무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작은 게 대세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단, 질서 있게 진행하는 평화로운 총회, 이것이 교단의 모습이고 총회라 생각합니다. 교단의 합동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노회의 영입을 통한 외연확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이제 안정을 찾고 성장의 기틀을 다졌는데 혼란을 야기할 합동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간동안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금과옥조가 되어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총회장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은혜롭게 교단이 발전하고 총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 신·편입생 모집요강

##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찬양반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혜교회-10만원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 수 : 2021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국가민간자격증 교육지원 가이드

150여개 민간자격 &amp; 30여개 국가자격과정

유망/인기 자격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 최고의 교수진 - 일타강사
- 고품질 콘텐츠 - HD 고화질 / 강의 품질
- 비대면 교육 - 모바일 / PC 수강가능
- 커리어 관리 - 취업경쟁력 제고

레스큐자격교육센터 - 국가 / 민간자격 총 180여개 과정 오픈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 전 국가자격과정 - 최고의 강사진 보유
- 교재구매시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 합격율을 높이는 최고의 교재구성

레스큐자격교육센터만의 혜택 (민간자격증)

- 동영상 수강료 / 시험 응시료 전액 무료 지원
- 100%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
- 자격증 신청시 - 상정형 / 카드형 제공

레스큐자격교육센터의 민간자격과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 과정 정식등록
- 2021년 최신 제작된 HD 고화질 강좌
- 비대면 교육 - PC / 모바일 강의 수강 및 검정가능
- 각 분야별 인지도 높은 전문협회 자격증
-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 레스큐자격교육센터 www.rescuecerti.com

서울종로A자격증센터  
센터장 박 만 진서울시 종로구 연건동195-11, 임호빌딩 801호  
010-6358-0191 / pmj0675@naver.com



재 언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개  
혁신단과 총회가 건강하고 풍요로  
운 공동체이길 소원한다. 어떤 공  
동체든지 건강하고 풍요로워야 한  
다. 공동체는 달란트가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화학적  
이고 물리적인 융합을 통하여 이  
뤄진다.

여기에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 맛이  
있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서로  
다툼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풀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원리이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덕목  
들이 요구된다.

우선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헌  
신을 요구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  
체는 각 지체들이 모여, 모여서 하  
나의 몸을 이룬다. 몸은 각 개체로  
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공동체마다 사  
회성을 갖는다. 서로 돕고 사랑하  
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각자  
가 공급해준 희생이요 헌신이다.

사실 헌신이란 덕목은 희생을 필  
요로 한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  
으셨고, 모든 믿는 자와 교회의 머  
리가 되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는 그러한 헌신을 필요로 한  
다.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가정 같은 공동체로, 혈연관계를  
뚫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건강  
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는 정직을 요  
구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가  
정직해야 서로가 믿어주는 신뢰관  
계가 형성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사랑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  
어야 한다.

서로 잘못이 있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에 조  
용히 때를 기다리지만 그것은 사랑

하는 행동은 아니다. 그때는 고통  
스러운 아픔이 있지만 서로의 진실  
한 관면으로 파벌의 웅덩이에서 건  
져주어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라가야 한다. 서로 간  
의 정직함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과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없  
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솔직한  
대답이 진실한 우정의 징표라 했  
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유하셨으니 그  
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거짓의  
말어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  
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여 서로  
가 굳은 지체가 되어야 한다. 건강  
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는 서로간의  
진실함을 요구한다. 건강하고 풍요  
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어느 모  
임에서나 겸손한 삶을 요구한다.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  
간 마다 항상 겸손을 생각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은 으름이 되고자 원하면  
낮아지라 하셨고 대접을 받고자 하  
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셨다. 예  
수님이 오심은 대접을 받고 저하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낮은 자로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  
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우면 공동체  
의 질서를 파괴한다. 이것이 교만  
하지 않고 겸손해야 할 이유이다.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겸손  
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셨다. 공동  
체의 교제의 올바른 모습은 겸손이  
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  
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  
만은 공동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를 받기 위한 삶을 방해한다.  
겸손은 자기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낮게 여기는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며 헌신하  
며 정직하며 겸손하여 예수님의  
본 된 삶을 따라감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교단, 개혁신회를 이루  
어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신년사



황호관 목사  
(중경총회장, 본보 사장)

지금 대한민국은 산통을 겪고 있다.  
해산을 앞둔 아낙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산신패도 흡사하다. 부끄  
럽고 안타까운 것은 새해 벽두에 전국  
교수회에서 선전했다는 묘서동처(猫鼠  
同處)라는 사자성어가 적중한 것 같아  
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누가 고양이고, 어떤 인사가 쥐새끼  
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5년 동안 행  
정수반으로서 나라 살림을 대내외적으  
로 책임질 20대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어  
찌 작은 일이겠는가?

좀 더 나은 인물, 아니 훨씬 훌륭한  
인물을 골라서 세우게 되었다면야 얼  
마나 좋으련만 그런데 이번에는 털 나

쁜 사람, 좀 털 더러운 사람으로 골라  
세워야 한다니 기가 막히지 않은가?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어려운데,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  
을 심판해서 바꾸자는데 어째서 이러  
게 마음이 편찮은 것일까?

14명, 역대 최고로 많은 수가 후보로  
등록됐더니 그야말로 뭐가 뛰니 뭐도  
뛰는 건지 모르겠다. 정견 발표랍시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주자들의 행보가  
가관이다.

10사람은 왜 나왔는지, 뭐하고 있는  
지조차 모르고, 두 사람은 일찍부터 들  
러리로 제격이었고 1번과 2번이 묘서  
인 셈이다.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번에는 장로  
나 안수집사가 진흙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것을 위안삼으려 한다.

이미 한국교회는 두 차례나 장로 후  
보에게 물표를 주었다가 속이 있는 대  
로 상했던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한분은 이미 유명을 달라했지만 그 분  
은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IMF로 몰아  
갔고, 다른 한 분은 아직도 냉골 옥안에  
서 새우잠을 자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

성경적 지도자 가이드라인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를 세우실  
까? 매우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정하  
신 가이드라인은 분명한데 거기 적합  
한 사람이 14명 가운데 있거나 한지 모  
르겠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리운 때,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그려 보여  
주신 지도자상을 만나 본다. 출애굽이  
라는 대사의 중심에는 모세라는 결출  
한 인물이 있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  
왕 바로를 10번이나 독대하면서 출애  
굽의 대업을 이룬 그는 수퍼 리더였음  
이 분명하다.

그가 이끌고 출발한 보통시민이 200  
만이었으니 그 행군의 위용이 어떠했  
을까? 그 거대한 민중을 여겨하여 질서  
를 유지함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은  
가히 절대적 필요였으며 필수적인 요  
건이었을 것이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출애굽 행렬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대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장인 이드로가 딸과 두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한다. 이  
드로의 눈에 비친 광야 야영장의 모습

은 중구난방이고 위기 그 자체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사람만을 바라  
보고 있었으니 아니 그러했는가? 많은  
일로 인하여 모세는 탈진 직전이었었고  
종일 장사진을 이루고 모세 면담을 기  
다리는 민원인들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하는 일  
을 보니 어설프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도 방침을  
제시한다. 혼자하면 안 된다. 혼자하면  
망한다. 그러니 소그룹 체제로 가자 쉬  
운 일, 사소한 일, 보통일, 그리고 어려  
운 일, 큰 일, 특별한 일로 구별해서 일  
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소위 부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하였으니 최초의 중앙조직인 셈이다.  
천 부장, 백부장, 오십 부장, 그리고 십  
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하면 함께 살지  
만 지금대로 하면 같이 망한다. 리더십  
여하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랐다는  
지론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장의 자  
격을 한 마디로 “재덕을 겸비한 자”라  
했다.

어떤 사람이 재덕을 겸비한 자인가  
를 세 가지로 명료하게 요약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  
니,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의 말을 빌리  
자면 <포말 대우> 즉, 신전의회(神前意  
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먹든지 마  
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경의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진실무망한 자니, 거짓 없는  
사람이고, 망령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이다.

그리고 셋째는 더러운 이를 미워하  
는 자라 했으니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마음에 새겨야 할 덕목이라 할 것이다.  
지도자가 마땅히 미워할 ‘더러운 이’는  
검은 돈이고, 비자금이고, 뇌물이고 그  
렇다.

이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소  
인배를 어찌 지도자라 할 것인가? 성경  
이 보여준 리더의 자격 기준은 너무 높  
아서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만을 하나님  
은 요구하신다. 누구인가? 더러운 돈  
을 미워하는 그것만이라도 분별했으면  
참 좋겠는데!!

짧고 긴 이야기

하는 다른 강도가 있었다.

그는 단호한 언사로 양심 없는 동료  
를 꾸짖고 주님을 변호한다. 그리고 자  
신의 구원을 강렬하게 호소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이 고백을 들으신 예  
수님은 십자가 고통 중에서 “내가 진실  
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그의 구  
원을 보증하셨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가 즉시 낙원  
에 이른 것은 아니다. 조금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두 강도는  
죽지 않았다. 어둡기 전에 두 다리를 꺾  
어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러니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주님을 끝내 저버린 그자는  
긴 고통 가운데서 먼저 돌아가신 주님  
을 향해 욕과 저주를 퍼부으며 악을 썼  
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보장받은 한편 강도  
는 소망 가운데 묵묵히 참아 낸다. 구원  
의 약속은 받았지만 좀 더 긴 시간을 견  
뎌야 하는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  
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스스로 그 약속을 무너

뜨릴 수도 있었으리라. 신학에서 말하  
는 구원의 여정에서 인내가 구원성취  
의 관건이 되는 긴박한 시점에 그가 서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짧고 긴 이야기가 시작  
을 알리는 시점에서 구원 역사는 출발  
하고, 그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원  
은 성취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복음송이 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  
원받았다는 확실만으로 구원성취를 말  
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확신 후에 비로소 겸중  
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님의 구원 약속과 자  
신의 확신이 있고부터 성도의 삶, 즉 긴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말할 것 없이 그의 언행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과 계획을 세  
워야 하고, 그 계획과 설계대로 이뤄가  
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공상에 불  
과하다. 이 말에 어느 누가 반론을 펼  
수 있었는가?

인간 만사가 다 그 과정을 겪어왔다.  
때로는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좋  
은 여건의 협력을 받은 경우가 없지 않  
다. 이런 경우는 삶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일어난 절호의 기회를 붙  
잡은 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서 행운의 합리론  
을 지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오히려  
노력의 흔적이 배어있는 긴 이야기 가  
운데 행운이라는 한 컷의 삽화가 그려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  
하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짧고 긴 이  
야기는 있기 마련이다. 사람의 삶에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는 열망이  
있기에 단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긴 이야기는 인간의 여환을  
담는 그릇이 되는가 하면,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며, 엄중한 검  
증의 과정이 되어서 당사자의 진가를  
평가받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만일 짧은 이야기로만 그치는 인생  
이라면 누가 그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겠는가? 찌깐 행나무는 도깨날  
에도 향을 남긴다는 말처럼 그 긴 이야

기 중에 원수의 이빨에도 사랑의 향기  
를 남겨 사방에 흩날린다면 아름다운  
최상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될 것이니  
이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상상  
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 긴 이야기 중에 주님 은혜가 널려  
있고, 예수의 흔적으로 치부할만한 마  
음과 육신의 깊은 상처도 남아있고, 가  
난하게도 되고, 약의에 찬 비난과 조롱  
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 소재가 되어 사  
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 이야기  
가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니 기뻐하  
고 즐겨워라.

이 땅에서 구원의 성취를 간절히 기  
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또한  
하늘의 상급이 크나...

우리는 짧은 구원 약속에 긴 인고의  
이야기는 무시하려는 경향 때문에 예  
수 님은 인격 형성의 과정을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인고의 시간을 거절할 당  
연한 대가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짧  
고 긴 이야기 중에 생긴 상처가 회복되  
는 은총 입기를 기원한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재 언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9:00 주일: 11:00 주일: 4:30 수요일: 7:30 금요일: 7:30</div></div><div>담임 임중학 목사</div><div>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7)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div></div></div>	<div><div>성 현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5:00 수요일: 7:3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강대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div>	<div><div>덕 소 제 일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8:00 주일: 11:00 수요일: 7:3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박만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div>	<div><div>평 안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3:30 수요일: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담임 이경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div>	<div><div>광 일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9:00 주일: 11:00 수요일: 3:00 금요일: 7:30</div></div><div>담임 장영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div></div></div>
<div><div>모 악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05:00 주일: 11:00 주일: 7:30 수요일: 7:30</div></div><div>담임 홍주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div>	<div><div>소 망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조신제 목사</div><div>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010-3727-9665</div></div></div>	<div><div>꿈 꾸 는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황호관 목사</div><div>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div></div></div>	<div><div>남 광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최갑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010-3654-4191</div></div></div>	<div><div>낙 원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05:0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김정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동 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div>
<div><div>화 평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30 금요일: 오후 9:00</div></div><div>담임 박종목 목사</div><div>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div></div></div>	<div><div>새 목 장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주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담임 김만수 목사</div><div>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망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div></div></div>	<div><div>중 심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0:30 주일: 1:00 수요일: 7:30</div></div><div>담임 박경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만원동, 일산원버티제니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div></div></div>	<div><div>벤 엘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9:00 주일: 11:00 주일: 4:30 수요일: 7:30</div></div><div>담임 박성욱 목사</div><div>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div></div></div>	<div><div>한 빛 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9:00 주일: 11:00 주일: 4:30 수요일: 7:30</div></div><div>담임 임용태 목사</div><div>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div>

양영자 사모 내조 記~13



양영자 사모

양영자 사모는 재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가정교회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00대학을 방문했다. 넓은 교정과 나무들과 바람이 우리를 반기는 듯 했다. 돌씩 짝을 지어 학교를 돌아보고 대학생 복

음운동과 중국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눈을 뜨고 서로 이야기하듯이 기도했다.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중국의 현실이 절박하게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고 그들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경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힘이 났다. 중국 대학생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합숙을 했다. 오전 훈련을 마친 후 그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우리

‘입맛’과 달라서 먹기 힘들었으나 그들과 함께 먹으니 즐거웠다. 오후 훈련을 다 마치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그들과 선교사들과 우리 일행을 합해서 30여 명이었다. 우리 형편에 적은 비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였다. 수백 명이 들어가는 큰 식당인데 주인의 친절한 배려로 은밀한 방에서 경계를 세우고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며 교제했다. 하루는 대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갔었다. 차를 타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 끝없이 펼쳐진 들만 가운데로 시원하게 뻗은 비포장 길을 2시간가량 달려갔다. 우리나라는 산에 숲이 있는데 중국은 들밖에 숲이 있었다. 그곳에 둘러앉아 성경공부를 하고 소

감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다음에 합심기도를 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집한 채 보이지 않고 사람이나 차를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좋았다. 모두 함께 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였다. 북경의 선교역사는 중국 최고의 대학인 00대학생과 북경에서 가장 우수한 공과대학인 00대학생 100여명 이상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는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연변에도 단기 선교를 2차례 갔었다.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하고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지하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의 눈물겨운 간증도 들었다. 단기선교나 선교여행을 하면 선교사님의 안내로 현지 관광도 한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를 받는다. 목회자가 되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교명령에 순종하니 텅으로 선교지관 광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용경협, 연길시, 용정, 헤란강, 백두산 천지, 두만강, 도문, 장가계, 상해, 홍콩, 황산 등 많은 곳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좋은 호텔이나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고 허름한 숙소와 값싼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다녀도 관광의 가치나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선교여행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두고 외국에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경비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성도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든다. 사람들에게

게 어떤 변명이나 설명을 하려하면 더 어색하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 도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건을 도와주시고 마음의 짐도 털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또한 성도들을 통해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선교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태국, 대만, 필리핀, 몽골, 미국, 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단기선교와 선교여행을 하였다.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여러 번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단기 선교와 선교여행을 통해 얻는 유익이 참 많았다. 선교지 사람들과 문화와 자연환경 등을 경험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며 그들의 수고와 눈물

과 어려움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그리하여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선교 비전이 생기고 믿음도 성장하며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들이 해외선교 하도록 힘써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해외 선교계획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단기선교와 선교지방문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후원과 단기선교와 선교지방문은 시간과 재물과 수고와 정성이 많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선교비전과 사명감을 끌어 올리는 축복의 통로이다.

기 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했다. 실로 그러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실로 우연이 아닌 필연같은 만남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혼자서 간직하기는 너무 소중한 나누려 한다.

지난 14일 교단본부에서 임원회를 마치고 총회개혁공보사의 일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총회개혁공보는 우리 교단의 유일한 언론 매체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중한 그릇이다. 크고 작은 총회의 소식이며, 격조 높은 신학논문,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삼기에 넉넉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공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어렵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신문 편집을 도우며 실질적인 살림꾼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오늘 방문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실 현관문이 열리고 흐르는 세월의 훈장을 받은 하얀 머리의 건장한 신사가 들어섰다. 같은 노화에 속해 있어서 익히 아는 박경남 목사였다.

속으로 이분이 설마 신문사를 돕겠다는 그 분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어깨에 걸친 가죽 가방을 호기롭게 썩 었더니만 오만원권 지폐를 큰손에 쥐고 있지 않은

신문사에서 만난 큰 손!



가?“적지만 이거 받으쇼! 300 만원이요, 신문사가 어렵다는 소식 듣고 아들한테 얘기 해서 받아 왔시다.”진진한 어원에 같은 그의 웃음에 거짓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만족감으로 총만내 보았다. 임원회를 마치고 쉬고 계시던 총회장께서 사무실에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때 맞추어 신문사 사장 황호관 목사까지 들어 섰다. 사전에 총회장과의 신춘대담이 예약되어 있어서 왔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야말로 한 순간에 이루어진 소중한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사무총장으로부터 박목사께서 신문사 발전기금을 쾌척했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장의 감사의 인사를 받은 박경남 목사는 성공한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다. 아들이 효자여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준다고며 티없이 밝고 환한 너털 웃음을 지으면

서 ‘사무실 이사도 했는데, 아양 왔으니 필요하게 없나요’ 기회를 잡은 사무총장이 겸연쩍게 웃으며 필요한 거 많지요 한다면 한다. 실은 신학교 강의실이자 회의실에 비치할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마만 돼요? 50권이 있어야 하고, 100만원 정도라는 말에 단 1분도 머뭇거리지 않고 100만원을 내 놓는 것이 아닌가! 어디 그 뿐이라 황호관 목사의 손을 붙잡더니만 사모님께 맛있는 거 대접하라면서 금일봉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럴수가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의 박경남, 경제의 대상이요, 불가늠, 불가원의 인물이 그의 황혼, 인생 2부작을 잘도 파는구나 싶은게 황홀하기까지 했다. 그분의 섬김이 계속되어서 교단과 신문사에 보석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하기를 빌며 사무실 문을 나서는 내발 걸음은 이미 부자였다.

박동혁 목사

해외선교

연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큰 눈은 1월 하순과 2월에도 계속되어 K시와 인근지역을 하얀 스के치북으로 칠한 것 같았습니다. 폭설로 인해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대중교통이 마비되어 학교가 휴교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년간의 가뭄이 해갈되고 1시간 반 거리의 B호수가 정상수위를 회복했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이 내릴 때, 도심이나 시골이나 언덕이나 대로에도 눈은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K시에서 공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영혼이 있는데 복음을 듣는 영혼과 듣지 못한 영혼이 존재 합니다. 아니 들었다하더라도 변질된 복음을 들었다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K시의 S대학캠퍼스 가까운 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단으로 인해서 가짜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이 있습니다. 고후11:4에서 바울은 이를“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시에서 진짜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더 많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말에 K시의 S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BR형제(22)와 복음을 나누기위해 만난 후 저희 공동체의 주일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저와 만나기전 개신교와 가톨릭에 대한 개념 없이 관심을 가지고 K시에서 유일한 건물교회인 성바울성당에 방문한 후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형제와 이신칭의의 주제로 대화 끝에 BR형제가 믿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복음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12월 성탄주일에 세례 받은 다른 대학생 BK형제(24)도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심히 참석하다가 겨울방학이 되어 I시의 집으로 떠나기 전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즘 고민은 저를 포함한 공동체의 형제들이 새로 믿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분이 되며 새로 믿는 영혼이 선한

기쁨사랑의 2월 소식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 믿은 형제 중 한 형제는 몇 달째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주일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매주 수요일 공동체에서 기도가 필요한 형제들과 새로 믿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부활주일에 세례 받은 E시의 G형제가 처음 받은 봉급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싶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후, 2백리라(약20불)를 보내와서 아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부친과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가계를 책임지는 형제에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믿음으로 첫 열매로 십일조 드린 것을 아시는 주께서 형제를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다른 고민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형제들이 어려울 때 복음만 아니라 빵도 썰며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책감이 들었는데 마침 연말에 개인적으로 두 분이 후원을 해주신 덕에 지난 연초 BIM(식 품편의제제인) 상품권을 여러 장 구입해서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국의 경제상황이 1997년 말 한국의 IMF상황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1년 말과 22년 초, 시장에서 오이1kg에 15리라(약1.5불)하던 것이 다음날 같은 시장에서 45리라(약4.5불)에 파는 일이 흔하고, 21년 혼자 식당에서 점심은 약 43리라(약4.5불)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점심을 외식할 때 1백리라(약9~10불)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 1년 사이 소비자들이 지수가 식품부44% 교통비 53% 급등한 것은 세계가 코로나로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상식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은퇴한 공무원이 연금으로 최저 4천리라(약4백 불)를 받는데 생활의 질이 그만큼 나빠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트램에서 만난 한

은퇴노인은 제게 2020년까지 한 달에 2번,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며칠째 감자만 먹고 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T국은 현 대통령이 몇 번 급진인하 등 경제실책보다 국가경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유망 방송기자 세데프는 현 대통령을“소가 궁전에 온다고 소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속담을 인용하며 비판했다고 대통령모욕죄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U형제의 사업이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G형제가 어머니로 부터 떠나서 A시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저희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R자매의 남편이 호텔에서 뮤지션으로 일하다 실직했는데 주께서 자매와 저희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다른 곳에서 뮤지션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과 빛 때문에 독일의 H시로 일하려 떠난 전 번호사 S형제와 헤어진 약혼자 S자매가 재결합을 위해 3월 중 독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과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G자매의 부모가 코로나로 부터 완쾌된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월 초 어느 날, 남은 생선통조림이 상한 것을 모르고 먹은 후 복통이 있어서 참다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의사는 제이폰 증세보다 한국산 K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러 약국에 갔는데 놀랍게도 약사가 K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약사인 M(43)과 대화를 시작하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배탈이 난 것은 제 부주의이지만 주께서는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제 몸이 제 것이 아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드릴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T국 김종선 선교사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로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div>	<div><div>등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div></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진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div>	<div><div>극동선교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박봉주 목사</div><div>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div></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정원득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div></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8:00</div></div></div><div><div>담임 김양석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div>	<div><div>월드비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김선영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비전가네 전화 010-2301-0898</div></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3:30 수요일밤: 7:30 구약예배(금): 9:00</div></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랑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div></div></div>	<div><div>증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삼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김정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div>담임 이승규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div></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3:00 금요일아: 7:30</div></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div>	<div><div>은누리사랑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오후: 7:00</div></div></div><div><div>담임 이혜동 목사</div><div>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div></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전: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오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div>

#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6회기 총회주일은 2022년 1월 30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1,000,000원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00,000원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원



꿈꾸는교회 황호관 목사  
경서노회  
340,000원



수원성심교회 박준배 목사  
서울남노회  
1,500,000원



어울림교회 유남규 목사  
전북중부노회  
500,000원



비전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00,000원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 기 김정호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 교단본부 이전 감사헌금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서 기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000,000원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복소제일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임중학 목사  
(재언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  
(임마누엘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이경근 목사  
(임마누엘교회)  
500,000원



박찬섭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2,000,000원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500,000원



증경부총회장  
김일출 장로  
(소성교회)  
4,000,000원



경기노회장  
박만진 목사 외  
1,000,000원



경서노회장  
하예성 목사 외  
300,000원



전북노회장  
김정호 목사 외  
500,000원



전북동노회  
정인직 목사 외  
500,000원



서울남노회  
김정용 목사  
500,000원



서울동노회장  
임용태 목사  
500,000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중학 박사  
500,000원



전국장로연합회  
김재호 장로 외  
500,000원



전남노회장  
서용진 목사 외  
500,000원



조신제 목사  
병은수기

성경·찬송 비치용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벽 시 계 임용태 목사  
(한빛교회)  
벽 시 계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반 주 기 박숙기 권사  
(새은혜교회)